

사랑이 전부인 예수님의 마음

이나시오는 영신수련 본문에 마음hear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나시오가 피정에서 구하고자 하는 응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영신수련이 주는 핵심적 은총이다. 이 여정은 제1주간에서 죄로 인해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2주간에서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당신의 일에 그분과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제3주간에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지속적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마주한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징표”인 성체성사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마침내 마무리 주간인 제4주간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부활하신 생명이 주는 한 없는 친밀함을 우리와 나누며 기뻐하는 분이시다.

영신수련을 마무리하는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우리는 마치도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처럼 이 세상에 쏟아져 내리는 하느님의 무한한 축복에 대해 묵상한다. 그리고 받아주소서 Suscipe라는 기도로 응답한다.

받아주소서 주님,

저의 모든 자유와 저의 기억과 지성

저의 모든 의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받아 주소서.

당신이 이것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두를 돌려 드립니다.

모두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주소서.

제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으로 저는 족하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 모르게 자기 몫을 따로 챙겨 두지 않는다. 진정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이나시오는 우리가 바로 이 경지에 다다르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눈다.

수 세기를 거쳐 오는 동안 사람들은 전적인 투신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이미지로 심장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예수님의 심장을 나타낸다. 그분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감추시지 않는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나시오 영성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 전부인 예수님의 마음이다.

사랑이 전부인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이나시오가 교황께 봉사하려고 예수회를 교황의 처분에 맡기기 위해 로마로 가던 중 라스토르타에서 현시로 보았던 것이다. 경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채 이나시오에게 나타나 “우리는

네가 우리에게 봉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시며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이냐시오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계속되는 당신의 치유와 구속 사업에 초대하셨던 것이다.

사랑이 전부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17세기에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라는 프랑스 수녀에게 나타나시어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녀가 본 이미지는 바로 예수 성심의 이미지였다. 예수님의 심장은 그분의 신성한 사랑의 상징이었다. 이 심장으로부터 가정의 평화, 어수선한 시대에 주시는 위로, 그리고 죄인에게 내리시는 자비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이 흘러나왔다.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을 크게 장려한 사람은 클로드 드 라 콜롱비에르라는 예수회 신부였다. 그는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수녀의 영성 지도 신부였다.

이냐시오는 9일 기도나 성무일도 또는 다른 신심 행위를 영신수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수회는 다른 수도회들과는 달리 어떠한 전통적인 신심과 연관되지 않았지만 예수 성심에 대해서만은 다소 예외이다. 라 콜롱비에르 신부를 시작으로 하여 예수회원들은 예수 성심을 가장 활발히 전파해 왔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신심이 이냐시오 영성의 진정한 총체이니만큼 그것은 당연하다. 이냐시오 영성은 아무것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한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응답, 전인격적인 응답,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내어 주는 응답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분의 사랑을 상징하며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마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전부이다.

요한 복음서 마지막 장에서 사도 요한은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벗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 주시고는 베드로 사도를 따로 불러내어 이야기하신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세 번 대답한다. 그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고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사랑이 언제나 확고했던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바로 얼마 전에 자기도 붙잡힐까 두려워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되짚게 해 주시려고 그에게 세 번이나 당신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도록 자극한 것이 분명하다.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명도 받았다. 베드로가 세 번 자신의 사랑을 분명

하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그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건 그 선물은 그가 이미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을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았다. 그는 사랑이신 하느님 마음의 은총으로 씻김받은 것이다. 이 사랑의 마음은 베드로가 자신이 봉사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이기도 하다.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나를 따라라.”이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있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다른 대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지라고도 말씀하신다. 멍에는 나무로 만든 도구로서 두 마리의 동물이 함께 물건을 끌 수 있도록 서로를 묶어 놓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목수이셨기에 멍에에 대해 잘 알고 계셨다. 그분은 아마도 나자렛에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일하던 목공소에서 손님들의 주문으로 멍에를 만들어 보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멍에라는 이 생생한 이미지는 우리를 그분과 친밀하게 연결해 준다. 멍에를 지고 함께 땀 흘려 일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향하고 계시는 방향을 알게 되고 그분의 힘을 느끼게 된다.

이 멍에는 사랑이다. 하느님이 당신의 피조물에게 쏟아부어 주

시는 한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관대한 응답이다. 멍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가장 원대한 꿈,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